

---

# **SERMON NOTES**

---

##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HEARING GOD

마태 복음 4 : 1-11 NIV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 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마태 복음 3 : 13-17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1. 광야는 수행과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청중은 한명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여 아버지외에는 아무도 지켜 보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때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창조물을 지켜 보면서 우주 무대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직함과 책임 및 직무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작가이자 목사입니다. 이 모든 제목이 변경될 수 있을수 있습니다. 황야는 우리의 깊은 정체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깃발을 걸고 말할 수있는 것은 정확히 세가지입니다.

3.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교통을 조용히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어려운 곳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산, 계곡, 지옥의 깊숙한 곳, 야생 광야의 가장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복음 5 : 15-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시편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